즉문즉설③

부처님 가피(구원)는 있는 것인가?



그럼 당신은 길에서 환우(조현병, 말기암, 희귀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건지 출가자로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중 벼슬이 닭 벼슬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법문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쥐고 있으면 혀끝에 면도날을 물고 있는 격이라고 정말 많이도 들었다.

그런데 **벼슬자리를 쫓는 이들은 과연 무엇인가? 벼슬자리에 갈애하고 갈음을 느끼는 그들은 과연 출가인이 맞는가?**

군소중단 가릴 것 없이 역대 선거에 입후보 했던 주인공들의 프로필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선방 수행결사, ○○큰스님의 상좌이며, 크다는 절 주지에 ○○선원장이며, 어마어마한 직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 이력이 되면 법력으로 신통부리는 도인이 되고도 남을 법한데,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수행을 어떻게 했길래 서로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는 문중인데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판을 벌렸었다.

수행은 누가 뭐래도 나를 비우고 세상을 향해 버리는 것이다. 특히 한국불교는 종파 관계없이 간화선이 유행이라 화두 탐구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화두를 무엇으로 간절하게 잡았는지…?

역대 그들이 했었던 행위를 봐서는 앉고 일어서며 무슨 수행을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부처님 말씀은 지은대로 받고 닦은데로 한다고 했다.

이럴 때 부처님 교지대로 마음 비우는 수련을 했다면 누가 뭐래도 그러한 자리는 사양했을 것이다.

三日修心 千載寶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지만

百年貪物 一朝塵
백년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 티끌이네

그나마 불교계에 불미스러운 일을 계기로 금번 선거는 공정선거를 확약했다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큰 어른들이 싸우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큰 사찰이야 별 피해가 없겠지만 소납 같은 작은 사찰은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불교의 특징은 전부 입만 살아 있다. 그래서 어느 선사가 지옥을 가 보니 입만 둥둥 떠 다니더라고… 얼마나 말들을 청산유수 같이 잘 하는지…

거기에 절집 경력자들인 고령화된 노보살님들이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다. 오로지 자기 절, 자기 스님이 최고라 한다.

오래 전에 정치판이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어져 있을 때 전라도에 가서 자는 사람을 깨우면 눈을 뜨기도 전에 "김대중"하고 경상도에 가서 자는 이를 깨우면 그 역시 눈을 뜨기 전에 "박정희, 박근혜"하고 외친다. 인물 평가는 아예 관심도 없고 오로지 누구라고 외친다. 이것은 조폭에서나 있을 만한 것이지 정상인들의 범주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 사찰이 그렇다. 무조건 자기네 절 스님이 최고이고, 자기 스님이 신통 부리는 도인이고, 각종 병, 말기 암, 조현병, 희귀병 등은 기본으로 낫게 하고, 자기네 절 스님한테 무슨 원(願)이든 얘기하면 원(願) 성취가 다 된다고 한다.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이 난립을 하길래 현대불교신문에 수행을 통해 그러한 법력을 가진 이가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멍석을 깔고 야단법석을 해 보자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하다.

제발 유명한 스님네와 크고 작은 스님네가 출연할 수 있도록 큰 절 신도님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능력을 만인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불교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수렁에 빠져있는데 말잔치는 하지 말고 이런 행사를 통한다면 불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반면에 ○○욕은 많이도 먹고 있다. 금강경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어떠하다고 한 것을 바른 공부 하는 이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업이 다 소멸되고 ○○에 태어난다고…

그러한 자리를 놓고 말 없는 정쟁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불교계 전 교단이 게임방법을 달리하면 어떨는지… 티벳 처럼 조그만 아이가 전생에 자기가 쓰던 물건이고 노리개라며 찾아낼 때 고승들이 증명법사가 되어 인준해 주는 그 장면을 출가인들은 다 알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쓰던 물건을 신통방통하게 찾아내는데 거기에 시시비비 붙을게 있는지… 말 그대로 신통이고 도력(법력)인데 역대 도전장을 던진 그들의 프로필이 그 정도 화려하면 도인도 벌써 도인이 되고도 남을 만한데 말로 하지 말고 도인답게 법력을 보이면 될 것인데 그런 수행력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데 제대로 된 도인이 있다면 닭 벼슬보다 못한 것을 손에 쥐려고 하지 않을뿐더러 아예 수행말고는 관심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도 출가하신지 6년 만에 육신통을 얻고 난 뒤에 사바세계 중생 구제하기 위해 저잣거리를 다니면서 중생 구제를 하셨는데, 우리네 출가자들의 수행 년 수는 (전생을 모르겠고 이생을 보면) 6년 보다는 몇 배로 많은 세월을 공부, 수행했다고 하는데 육신통은 그렇다치고 그럼 몇 통이나 얻으셨는지?

이제 입은 다물고 득한바 얻은 것을 보여라! 얻은 것이 있다면 중생을 구제하고자 보여야 할 것이다. 입은 굳게 다물고… 입을 아예 봉하라는 것이 아니다. 보이고 그에 합당한 얘기를 차근차근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말장난이 아님을 여실히 느낄 것이고, 변치 않는 신뢰를 가질 것이다.

일부 명상 단체나 ○○세계 대전에서 공중부양이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벽이 있건 없건 찰나에 이동한다는 그러한 것은 불보살의 권능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가의 신통은 중생 구제를 위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어진다. 예로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 등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등이다.

예로 외도를 하는 이가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몇 살 먹은 남자,여자,머리스타일이 어떻고, 어떤 색깔 옷을 입고 등등… 조용히 얘기한다. 소문 안나게…

【 사례 ❸】 ○○노보살님

남양주에 사시는 노보살님께서 법회를 마치고 공양이 끝난 후 상담을 받기를 원했다. 가까이 마주앉자 "스님! 우리 손녀가 집 나간 지 며칠 됐는데요…" 하며 울면서 얘기한다. 노보살님은 매일 사경을 하시고, 일요일 마다 공부하고 법문 들으러 오시는 분이다.

"오늘 법회 끝나고 곧장 집으로 가서 (참고로 중2) 이 기도문에 적힌데로 ○○ 기도하십시오." 하고 기도문을 적어드리니 "스님! 그러면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그래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녁 7시 5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다그치지 마시고, 역정도 내지 마시고, 편하게 쉬게 하십시오." 했다.

저녁 7시 15분에 노보살님께 전화가 왔다. 정확하게 7시 5분에 손녀 딸이 들어왔다며 너무 기뻐 들뜬 목소리였다.

절대 오래된 신도라 할지라도 사업이 어떻고, 장사가 어떻고, 대학 합격이 어떻고, 승진, 취직, 부동산 등등… 이런 얘기는 절대하지 않는다.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것도 신도님들 일신상 얘기 중에서 ○월 ○일에 어디 가지 말라고. 아니면 ○월 ○일에 손주, 아들, 딸 교통사고 나니 일체 바깥출입을 삼가라고 한다.

부처님 제자로서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키 위해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방편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경전)대로 바르게 수행하라는 것이다. 혹여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나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 방편을 쓴다면 이내 없어짐을 알아야 한다.

공중부양과 이쪽에서 저쪽으로 벽이 있건 없건 찰나에 이동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면 빠른 시일 내 그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설사 공중부양과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식간에 이동한들 **중생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말로 시작해서 말잔치로 끝나는 그런 행사 하지 말고 아니면 불보살의 능력에 부합되는 조현병, 시한부 말기 암, 희귀병 환자를 병동에서 직접 데리고 와서 도인들 답게 도력(법력)으로 기도해 보라.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는 정신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여기에 정신 수련을 제대로 한 이가 있다면 잃어버린 정신줄을 찾아주면 된다.

불교는 정신수행이다. 이것을 마음 수련이라고도 한다. 정신을 도둑질 해 간 놈이 있다. 간화선, 위빠사나, 사마타 등… 제대로 **알아차림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관(觀)을 통해 순식간에 알아차렸을 것이고, 그리고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법력이 생기는데 그 법력으로 제거하면 될 것이다.** 수행한 이라면 아주 쉽고도 쉬운 것이다.

그래서 대형 사찰의 수장이나 ○○선원에 수장을 뽑을 때도 반드시 법력이 있는지 일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뽑아야 할 것이다. 이생에서 이력과 경력만을 보지 말고 **수행으로 얻은 법력을 확인해야 한다.**

무대 위에서 티벳 처럼 도력(법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인다면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드는 이 없을 테고, 사부대중 모두가 더 결집력을 높일 것이다.

* * *

이 글을 보고 격려와 일부 △△욕 등… 전화가 많이 온다. 신문에 전번이 노출된 이들이 전부 시한부 생으로 병원과 종교집단을 전전긍긍 하다 재산은 재산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파탄에 빠졌다가 이제 겨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전국에 수없이 많지만 대개는 노출을 꺼리지만 이들은 지면에 올려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아직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가피(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그들에게 알려서 단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질문하면 병원, 본인의 이름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명이라도 더 살려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고, 더 크게는 바른 불자로서 부처님께 보답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광분해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짜고 하는 등… 아니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용어를 쓰신다면 전국에 있는 그들에게 전번을 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오래전 시차를 두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TV 조선 ○○사 사건》 등등을 통해 종교집단의 사기 허구성을 취재한 것도 잘 알고 있고, 본납자도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도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때 까지는 심증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얘기하지만 본 연등사는 불자님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절을 창건하지 않았고, 절에 필요한 모든 가재도구는 길에서 주워서 쓰고 있고, 농사짓고, 공양주 두지 않고, 양말 등… 깁고 기우며 아나바다를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글을 쓰면 말이 생길 것 같아 그만 쓰겠습니다.

모든 것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 불시에 누구든 와서 신분 밝히지 말고 확인하고 가십시오.

이제 말로만 하는 정법보다는 실천하는 정법인연을 맺읍시다!

불교계 최초 즉문즉설 안내

내용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일시	2018. 10. 7 (일) 오전 10시
장소	연등사 대웅전
전화	055-633-6555
참가자격	누구나

* 당일은 개인 면담은 안 되고 학장 스님과 협의 요망.

기도 동참하신 일부 신도님 연락처

김○○	010-2526-4365
박○○	010-4807-6932
박○○	010-9707-4808
윤○○	010-6786-7495
선현	010-3143-5302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